

흥행 성공 '원초적 비디오 본색' 자료 공공자산화 해야

ACC 역대 최장기 7개월간 전시 10만6000명 발길 지난 18일 끝나 수집가 조대영 전시품 기증 의사 한때 5·18 진실 알린 비디오 매체 아카이빙 콘텐츠 가능 장소 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역대 최장기 전시로 꼽히는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 지난 18일 종료된 가운데 전시품이었던 2만7000여점에 달하는 비디오테이프를 광주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디오테이프의 주인인 조대영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는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마땅한 보존 방안을 찾지 못해 도로 개인 수집창고에 가져다 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ACC 기획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은 2월 끝날 예정이었으나 반응이 좋아 지난 18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무려 7개월간 전시를 선보였다. ACC 역대 최장기 전시다. 누적 관람객 수도 10만6000명에 달해 ACC에서 흥행에 성공한 전시로 손에 꼽힌다.

'원초적 비디오 본색'은 국내 최초 비디오테이프를 소재로 한 전시였고 복고풍

분위기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을 이끌었다. '원초적 비디오 본색'은 비디오대여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영화 '원초적 본능'과 '영웅본색'을 합쳐 지은 전시명이다.

2만7000여점의 비디오테이프를 장르별, 연령별, 감독별로 구분해 전시했다. 비디오테이프 외에도 비디오 시대의 명작인 '러브레터', '라붐', '영웅본색',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등 4편을 실감콘텐츠로 새롭게 재편집해 상영했다. 이를 통해 옛 세대에겐 추억을,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층에는 감성 공유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2만7000여점에 달하는 전시품들의 주인은 1990년대초부터 지역 영화운동에 앞장서온 조대영 디렉터다. SBS 방송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비디오 수집가로 출연하면서 ACC와 연이 닿았고 비디오테이프 컬렉션을 콘셉트로 한 전시를 열게 됐다.

성황리에 끝난 전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절판돼 기록 가치가 상당한 비디오테이프는 이저리도 저저리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추후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대영 디렉터가 공간만 제공해준다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비디오



ACC 기획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 지난 18일 종료된 가운데 전시품인 2만7000여점에 달하는 비디오테이프의 주인인 조대영씨가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테이프를 비롯해 평생 모은 자료를 광주시에 모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마땅한 장소나 활용 콘텐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조대영 디렉터는 "당분간은 이 비디오들을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처지다. 1980~1990년대를 풍미했던 비디오테이프 컬렉션들이 광주에 남아 시민들의 공공자산이 되길 바라지만 현재 마땅한 공간도, 자

본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디오테이프를 맥락 없이 모아온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5만여점의 비디오테이프를 모았는데, 그 양이 전체 비디오테이프 작품의 80% 정도로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디오테이프는 한국에서 1982년 처음 제작·유통돼 2000년대 중반까지 시대를 풍미한 대중매체로 기록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광주라는 특정

공간에서 아카이브 기능과 활용 콘텐츠 방안을 담아 5만여점에 달하는 비디오테이프 컬렉션을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영화계는 비디오테이프의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집담회를 열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형중 문학평론가는 "기능을 다 한 비디오는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며 "예술작품으로서 비디오의 가치는 상영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구와 전시, 교육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80년대 광주비디오를 비롯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일어난 수많은 비합법 예술운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비디오와 광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며 "이러한 자산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면 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만여점에 달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수용할 당장의 공간은 없다"면서도 "광주시 차원의 수용 결정에 앞서 보존, 관리, 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기증조건은 없는지 의견을 공유 중이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머나먼 미래사회로 떠난 월산동 '수박등' 아이들

ACC 음악극 '수박등 사람들' 23~24일 예술극장 극장1서

광주 월산동 '수박등'에 살았던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미래사회로 옮긴 음악극이 관객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수박등 사람들(원안 조홍준)' 공연을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수박등 사람들'은 '제1회 ACC 스토리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지난 1980년 광주 '수박등'에 살았던 아이들이 실제 겪은 이야기를 미래사회로 배경을 옮겨 새롭게 각색한 음악극이다.

거대 권력에 맞선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인물로 등장시켜 우리가족과 주변인에게 일어난 일로 상징화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미래사회 파괴된 환경 속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마지막 안식처 '씨투루루스라나.' 그곳에서는 복제인간을 생산해 모든 사회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다. 누군

가는 인류의 미래 사회를 위해 사이보그의 길을 선택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두뇌 세포만을 남겨 정신세계로서만 존재하며 마지막 누군가는 냉동상자 속에 넣어져 100여년을 잠들어 있다가 이제 막 깨어난다.

'수박등 사람들'은 어릴 적 도심 속 한적한 변두리 수박등이라는 작은 언덕에서 우정을 나눴던 세 친구들이 기구한 인생 역정을 통해 결국 100여년 후 아득히 먼 미래 어느 한 곳에서 상봉하며 펼쳐지는 휴먼 드라마다.

지난해 시범공연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작품은 이후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사회 세계관의 확장과 인물간의 갈등구조 등 연출 안을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10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극음악은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수박등 사람들'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3시 등 두차례 선보인다. 관람연령은 8세 이상으로 입장료는 전석 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과 전화 상담실(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흥부가'

25일 '판소리 감상회' 광주박물관 대강당서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 하는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 소리 다섯바탕 중 하나인 흥부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판소리 흥부가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초압' 대목부터 '제비노정기' 대목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광주시립창극단 상임차석이자 제24회 목포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이복순 단원의 소리와 기악부 상임단원인 김준영 단원의 북장단을 감상할 수 있다. 윤중강 국악평론가의 해설도 곁들여진다.

판소리 흥부가는 마음씨 착한 아우 흥보와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 놀보의 이야기로 형제간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받은 박씨를 심어 흥보가 부자가 되자, 놀보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곤 벌을 받는 내용이다. 재담 소리가 많고 익살스러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의전당 제공**

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판소리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깊어짐에 감사하다"며 "매번 사전 예매가 매진되는 만큼 더 재밌고 유익한 공연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이자 전석 무료로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는 앞으로 8월과 10월, 11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국립광주박물관 다음으로 광주상설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공연마루에서 무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수박등 사람들(원안 조홍준)' 공연이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서 펼쳐진다. **ACC 제공**

피아니스트 송영민 광주서 첫 독주회 '칸타빌레 II'

2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JTBC 드라마 '밀회',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오리지널 연주자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광주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송영민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에서 '기억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꾸려진 'Cantabile II(칸타빌레 II)'를 공연한다.

송영민은 러시아에서 수학한 피아니즘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러시

아 펠리츠키 피아노 콩쿠르, 그리스 테살로니키 실내악 국제 콩쿠르 등에 입상하며 젊은 나이에 보기 드문 다양한 음악적 색채와 견고한 테크닉을 선보이고 있다. 또 KBS 클래식 FM의 라디오 프로그램 '생생클래식'에서 코너 '송영민의 클래식 다이어리'를 1년 2개월간 진행, 클래식 해설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광주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이번 송영민의 독주회는 지난 4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선보인 공연 'Cantabile I'에 이어 두번째 시리즈 무대로 'Cantabile II'

라는 타이틀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Cantabile'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할 수 있는' 또는 '노래 같은' 뜻을 가진 음악 용어로 기악곡에서 '노래하듯이 연주하라'는 지시로 사용된다.

송영민 피아니스트는 이번 독주회에서 러시아 낭만 피아니즘의 진수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전주곡 Op. 23-5번, Op. 32-11번과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피아노 독주 형태로 편곡해 선보인다. 또 모차르트의 소나타 K.333,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Op.118을 연주할 예정이다.

예매는 인터파크(<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3004518>)에서 가능하며 전석 3만원이다. **도선인 기자**